

# 7월의

# 육계전망



장민기  
(분회 부회장)  
(버들농원 대표)

## ◎ 개 황

5월 중순이후 회복된 닭값이 6월에도 그런 대로 경영비 수준에는 계속 머물다가 월말경에는 하락하기 시작하여 8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3월이후 계속적으로 매월 10% 이상씩 생산이 증가되는 현상이어서 예년의 예로보아 부진한 6월의 닭값은 경영비 이하로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 했었다.

생산물량 조절이 5%정도만 이루어 졌더라면 금년도 초여름의 닭값을 멋있게 기록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5월의 육계전기 사료 생산량이 예상보다 크게 웃돌아 6월 하순 이후의 계속생산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 ◎ 분 석

1) 5월의 육계전기 사료가 전년도 동월대비 17%나 증가하고 전월대비는 15%나 증가하였다.

7월은 소비가 느는 계절이긴 하지만 15%이상의 소비가 증가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6월말의 닭값이 800원대가 무너지는 가격형성

이고 6월말 이후의 생산물량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7월 중순 이전의 닭값은 경영비선 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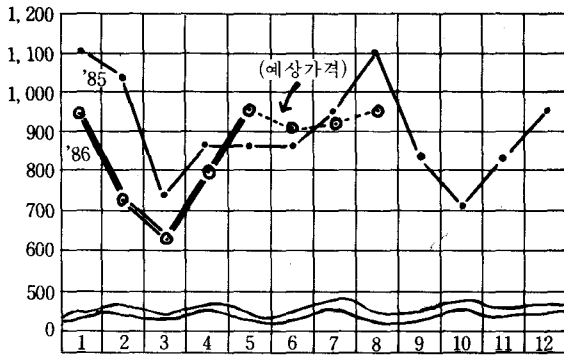
2) 7월 중순 이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닭고기의 소비는 큰폭으로 증가 할 것이고 이때는 생산이 소폭으로 증가하고 더 구나 혹서로 인해 출하 일령이 늦어져 일시 계속 의 품귀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어 7월 중순 이후 8월 중순까지는 대체로 1,000원대를 형성 할 것 같다.

3) 6월의 사료생산량은 5월대비 약 7%가량 증산될 전망이고 이양은 전년도 동기대비 11.5% 정도 증산된 양으로 전년도 복중 닭값이 생산가 에 근접된 것으로 보아 금년도 7월중순 이후의 닭값은 비교적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계속되는 병아리 품귀상태로 7월중 병아 리 입추도 계속 과열현상인 것 같고 300원대 이 상의 병아리 가격이라면 부화장에서는 병아리 감 산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더위로 인해 감산되는 양을 제외하고는 의도적인 감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구나 추석 이후 아시안게임 등 체육행사가 있고 10월초 계속되는 연휴 등 닭

고기 소비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간파한 육계사육  
농가는 계속해서 입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  
아 지금과 같은 입추패턴이 계속된다면 상당한  
양의 계육이 과일 생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  
여져 신중한 입추계획이 절실히 요청된다.

85~86 월별 육계가격



83~86사료, 병아리(생산수, 잠재력) 가격 비교

월	년 도	사 료(천톤)		병아리 생산수 (천수)	잠 재 력 (천수)	가 격 (원/kg)
		전기	후기			
1	83	18.8	29.4	8,659	12,600	1,124
	84	13.4	25.9	7,394	16,521	995
	85	19.6	27.3	11,500	14,596	1,115
	86	21.0	31.6	14,000	14,500	966
	83	20.8	31.4	10,284	13,070	1,047
2	84	12.9	16.5	9,356	17,551	1,134
	85	19.8	29.7	12,000	14,519	1,050
	86	21.1	32.8	14,000	15,200	740
	83	27.3	41.5	13,130	13,880	739
3	84	23.3	19.7	12,922	18,534	1,353
	85	22.9	33.0	13,000	15,164	750
	86	24.5	36.7	16,000	16,500	650

4	83	23.1	43.8	14,004	14,655	739
	84	26.7	30.2	14,060	19,158	1,048
	85	23.6	35.4	14,500	15,719	870
	86	26.4	38.0	16,800	17,700	800
5	83	29.2	43.9	13,608	14,845	789
	84	29.9	42.0	16,196	18,809	785
	85	26.1	36.9	15,500	16,500	870
	86	31.0	37.9	19,350	18,600	957
6	83	32.1	48.4	15,420	14,239	902
	84	29.0	44.6	13,022	18,124	733
	85	28.7	38.9	16,500	17,000	870
	86	추33.0	추42.0	20,625	19,000	추 900
7	83	28.6	49.6	14,464	12,898	876
	84	23.7	41.5	11,433	16,668	987
	85	28.1	43.5	16,000	14,500	950
	86	추33.0	추45.0	추20,000	17,300	추 900
8	83	26.6	44.9	12,609	11,893	899
	84	20.1	28.8	11,029	14,686	1,180
	85	25.3	34.5	14,500	13,000	1,100
	86	추30.0	추45.0	추18,750	15,600	추 950
9	83	23.9	48.9	13,340	11,469	802
	84	19.5	29.1	10,038	13,408	977
	85	22.0	38.5	12,000	12,500	840
	86		38.5		13,000	
10	83	22.5	43.3	11,361	11,362	608
	84	19.4	29.5	9,980	13,064	900
	85	20.4	35.7	11,500	11,000	714
	86				14,900	
11	83	29.3	37.5	10,373	13,389	747
	84	19.6	28.1	10,483	13,810	952
	85	21.4	31.3	11,000	11,000	831
	86				13,000	
12	83	17.9	38.8	8,193	15,069	772
	84	20.8	33.5	10,654	14,349	951
	85	23.7	37.2	12,800	11,500	950
	86					
계	83	296.1	501.4	145,447	159,811	845
	84	258.3	369.4	136,567	194,682	1,000
	85	281.6	421.9	160,800	177,000	
	86					

※표에는 85년도 이후부터 특수사료 포함되어 있음.

표 2. 표본 10개 사료메이커의 생산량 순별비교

사 료	월 순 년도	3			4			5			6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초	중	하
전 기	85	2,562	2,512	2,635	2,855	2,748	2,523	3,360	2,859	3,295	3,066	3,385	3,518
	86	1,477	2,188	2,802	2,149	2,038	2,591	2,500	2,350	3,165	2,673	3,429	추(3,700)
후 기	85	2,817	3,456	3,259	2,813	3,282	3,285	3,060	3,385	3,912	3,182	3,451	4,264
	86	2,112	2,843	3,673	3,663	2,146	3,490	2,417	2,545	3,686	2,802	3,201	추(3,900)
계	85	5,379	5,968	5,894	5,668	6,030	5,808	6,420	6,244	7,207	6,248	6,836	7,782
	86	3,589	5,031	6,475	5,812	4,184	6,081	4,917	4,895	6,851	5,475	6,630	추(7,600)